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소식지
vol.1 June. 2016.



발행

2016년 6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기획 및 편집

충남공공디자인센터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ni.re.kr



창간호 특집 축사

- | | | |
|----|-----------------------|---------|
| 04 |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 | 강현수 원장 |
| 06 |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 권영현 센터장 |
| 08 |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삶터” | 박경구 과장 |

디자인 리뷰 : 해안경관

- | | | |
|----|------------------------|--------|
| 12 | 주전에서 온 편지 | 김인 주무관 |
| 26 | ‘바다의 영광’ 매력적인 수변경관의 도전 | 이석현 교수 |

디자인 레벨 업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 | | | |
|----|-------------------------------|------|
| 36 | 공공디자인 컨설팅이란? | |
| 38 |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례 | |
| | • 부여군청 주민과의 대화방 디자인 | 부여군 |
| | •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소통공간 조성’ 디자인 | 금산군 |
| | • 정수장 경관재생 디자인 | 서천군 |
| | • 고마센터 간판 디자인 | 공주시 |
| |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 디자인 | 충청남도 |
| | •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 | 부여군 |

국내 정책동향

- | | |
|----|-----------------|
| 44 | 중앙부처 정책 및 제도 동향 |
| 52 | 충남 정책 및 제도 동향 |

- | | |
|----|--------|
| 58 | 디자인 뉴스 |
|----|--------|
-

●
창간호 특집 축사

Design Chungnam

창간호 특집 축사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

강현수 원장

04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권영현 센터장

06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삶터”

박경구 과장

08

“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

”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저희 연구원 부설기관인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소식지를 창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은 1980년대 이후 농업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 경제로 바뀌면서 경제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소득 역외유출, 주력산업의 성장둔화, 중국과의 경쟁 격화, 저출산·고령화 등 다각적인 요인으로 충남은 점차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변화 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시기는 기존의 개발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장소기반형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충남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의 가치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곧 충남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이를 위해 타 광역지자체보다 앞서 2008년부터 디자인 활용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9년에 디자인 전문기관인 충남공공디자인센터(2009년 설립 시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저희 충남연구원 내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건축, 도시, 경관, 생태환경 등으로 확대하여 디자인 대상의 통합적 관리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재생에 기여하여 기존의 가치를 새롭게 혁신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센터의 기능입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4년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충남이 경관·공공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통합시스템 구축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실행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디자인 관련 연구 및 기획, 컨설팅을 수행하는 실행연구조직으로 수원시, 충청북도 등 타 광역자치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공공디자인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농어촌지역 활성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업 및 중재기능을 통해 도 단위의 총괄계획과 지자체 개별단위의 실행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충남의 통합디자인 실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디자인 충남”이 충남 디자인 정보발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디자인 업무 및 정책 수행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충남의 디자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



안녕하십니까?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센터장 권영현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준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작의 발단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생활공간의 낙후성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잘 갖추어진 다른 공공공간을 접하게 되면서 도시환경이나 공공영역을 제대로 가꾸려는 인식과 기대가 생겨났고 이를 충족할 실질적인 방안으로 공공디자인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공공디자인을 행정에 도입하면서 맨 먼저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를 설립 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대도시에 비해 디자인 수혜를 받기 어려운 여건에서 인식 확산과 디자인 사업구상에 컨설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2014년에는 ‘공공디자인센터’로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면서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건축, 경관, 마을 만들기를 비롯하여 요구되는 분야에 내부, 외부 전문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확산과 컨설팅 수준을 넘어 정책 개발을 비롯하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관련 사업들의 사업 구상에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디자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공공디자인 소식지 “디자인 충남”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충남”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도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동향과 정책, 지역의 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인쇄매체와 웹진 형식의 계간지입니다. 그간 관련 소식지가 해외나 주요 도시에서 이루어진 수범사례를 주로 담았다면, “디자인 충남”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심게 되면서 보다 지역에 친근하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 홈페이지(www.cpdcre.kr)와 더불어 정보제공과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디자인은 필수 항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희 센터는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공공디자인이 요구되는 분야에 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과정에 참여를 통해 학교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이러한 구상의 한 예입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 DESIGN) 분야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활발히 하려 합니다.

이번 “디자인 충남”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센터 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디자인 충남” 발간으로 공공디자인과 저희 센터에 보내주시던 관심과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6년 6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 권영현

“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삶터 만드는 길잡이 되길

”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장 박경구입니다.

충남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계간지 “디자인 충남” 창간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는 2009년 2월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디자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공성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적이고 경직된 공공성이었다면 이제는 소통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이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이며, 이용자 중심의 공공성의 확보는 지역 주민 삶의 질 및 지역 경쟁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이 터전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거대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이 나열된 공간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간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가지고 싶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경쟁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식을 위해 주말을 이용해 산과 들로 공간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공간이 출퇴근이 안전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무실에서 직원을 배려한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잠시나마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대한 21세기의 관심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망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으로 만들어진 작지만 세심한 공간, 구성원의 삶을 배려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남도가 도민의 이런 열망을 담아 센터를 운영해 온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센터는 그 동안 충남도 및 시·군 주요사업의 디자인 컨설팅과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통하여 우리도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충남도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정보지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에 대한 소식을 들려줄 계간지 “디자인 충남” 창간은 무척이나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충남도 공공디자인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홍보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충남도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 충남”이 큰 힘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충남”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애써 주신 센터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
디자인 리뷰 : 해안경관

Design Chungnam

디자인
리뷰 :

해안경관

주전에서 온 편지

울산동구청 도시디자인과
김 인 주무관

울산 동구의 해안과 어촌



주전마을이 속해있는 울산광역시 동구는 울산의 동쪽 반도와 같은 지형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섬”, “현대왕국”으로 불리고 있다(조선시대에는 동구 전역이 말을 키우던 목장이었다). “울산의 동쪽에 위치한 구”란 이름의 동구는 39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음에도 이 중 26km(67%)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친수 해안 공간과 어항은 13km(일산~방어진 9km, 주전 4km)에 불과하다.

대표 친수공간인 일산유원지, 대왕암공원, 방어진항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여 울산광역시와 동구의 명소이지만 대왕암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촌의 모습은 나날이 사라지고 있음이 아쉽다.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위치

주전마을의 입지와 주변 관광자원

동구지역에서도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주전마을은 울산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어촌마을 중 하나로 공장과 주거지로 개발된 시가지와는 해발 200여m의 봉대산으로 분리되어 도심지 근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어촌마을의 정취와 공간이 잘 남아있는 곳이다 (사실 2003년 말이 되어서야 주전마을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한 몫을 했다).

주전고개 넘어 5km내에는 울산광역시외의 최고(最古)사찰인 동축사(시 유형문화재 제11호)와 남목 마성(시 기념물 제18호), 주전봉수대(시 기념물 제3호) 등의 역사 자원이 있고 맨발등산로를 비롯한 등산코스가 일품인 염포산, 마골산, 봉대산(주전마을에서는 ‘새바대’로 칭함)이 있으며, 이 산들을 넘어가는 구불구불한 옛 동해안로(구 주전로)는 봄이 되면 벚꽃터널로 인기가 높은 드라이브 코스이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영되는 캠핑장(주전가족휴양지)과 여름철 물놀이 시설이 있고 2013년 7월에 개장한 쇠평어린이 공원(무료)은 울산 최초의 레일 썰매장을 비롯해, 미니마을, 피크닉장, 잔디광장 등이 있어 유아, 초등학교생들과 가족단위의 이용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전몽돌해안은 동해안의 아름다운 몽돌해변으로 작은 구슬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 몽돌이 길이 약 2km, 폭 30~50m로 펼쳐져 있으며, 일반 모래 해변과는 달리 들러붙지 않아 깔끔하고 지압효과가 우수하여 연중 해수욕과 산림욕 등 여가를 즐기려는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주전마을 주변 관광자원

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안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송림은 뛰어난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으며 번덕마을에는 300여 년이 넘는 곰솔나무 2그루(시 지정 보호수)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주말 자연농원이 있어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많다.

새바대 아래 구릉지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대규모 주택단지나 상가가 들어서지 않아 조용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이 조성되어 은퇴 후 노년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지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최근 마을에는 전원주택과 저층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중마을에는 돌담, 전통가옥, 우물 등이 남아있고 폭 4m 정도의 마을 안길을 걷노라면 어린 시절의 골목길 정취를 느낄 수도 있다.

주전마을의 역사와 특징

주전이라는 지명은 주밭(朱田), 밭밭으로 그 훈(訓)대로는 단순히 붉은 땅이라는 토지 색에 의한 이름으로 명명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위의 여러 지명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주전 서쪽 산을 '새바대'라 부르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명자산(明自山)'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주전이 단순히 붉은 토전(土田)을 가진 곳 뿐만 아니라 밝은 밭, 또는 주위가 탁 트인 넓은 곳이라는 이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전은 조선 중기 정조 때까지만 해도 산 아래 언덕쪽의 주전육리(朱田陸里)와 바닷가쪽 주전해리(朱田海里)로 나뉘어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주민들은 농업을, 바닷가 쪽 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해 왔다.



주전마을 항공사진

주전동 주전마을은 다시 세부 마을로 나뉘어지는데 남쪽(아래쪽)으로부터 봉수대 아래에 있다고 해서 보밀마을, 위쪽에 상마을(건너각단과 상마을로 구성), 중마을, 아랫마을, 큰불마을(대장국과 큰불마을로 구성), 언덕위에 번덕마을, 새마을 등 7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다른 어촌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전만이 지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로 각 마을에는 주민을 지키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당(10개소)이 마을별로 있었다는 점이다(2008년 동제를 지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모두 폐하고 주전경로당 2층에 모든 위패를 모셨다).

과거 주전마을은 울산 이외 지역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이었지만 1981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주전어촌계의 이야기를 각색한 ‘어촌에서 온 편지’라는 새마을사업 홍보영화가 제작되면서 전국에 그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울산광역시의 경관을 대표하는 ‘울산12경’ 중 하나로 ‘주전몽돌해안’이 선정되었고, 2009년 제4회 ‘지역자원경연대회’에서 전국 10선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국내 여행전문가들에 의해 발행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 1001’에 주전몽돌해안과 봉수대가 소개되었다. 2012년에는 MBC드라마 메이퀸 촬영, 2014년에는 울산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지역에 선정되는 등 나날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특산물로는 주전돌미역과 전복을 꼽는데 과거에는 왕실에 진상될 정도였다고 하며 제주도를 제외하고 단일 어촌계로는 최대의 인원인 70여 명의 나잠(해녀)회원 중 아직까지도 50여 분이 물질을 하고 계셔서 싱싱한 자연산 해산물을 사계절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계절별로 가지미, 삼치, 방어 등이 어장을 이루면서 낚시꾼들에게 연중 인기가 높은 장소이다.

행정구역상 남목3동에 속하는 주전마을은 현재(2015년 12월 말 기준) 811명의 인구와 37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64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8개의 주민 단체(주전동발전위원회, 주전청년회, 주전노인회, 주전어촌계, 주전 나잠회, 선주협의회, 남목3동바르게살기위원회, 남목3동 새마을협의회)가 활동중이다.

주전마을 경관형성사업의 시작

2010년 6월 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해안마을 미관개선 시범사업 공모계획이 발표되었다. 7월 한 달 동안 주민간담회와 주민 개별 면담 등을 바빠 진행하면서 4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평가단의 현장 방문이 있었고 10월 19일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대상 5개 마을 중 하나로 우리 동구 주전마을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안서의 주 내용은 산업도시 울산 동구에서 힘겹게 어촌 마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주전마을을 대상으로 주요 항구와 해안 및 마을 안길을 정비하여 쾌적한 어촌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물리적 사업과 고유한 역사, 전통, 인물을 재조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주민 교육과 견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들 간 마을약속(경관협정)에 의한 지속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경관형성 사업의 목표로 정했다.

사업규모는 주전 7개 마을 중 5개 마을(0.198km²)에 주전해리권역 경관개선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5년 간(2010~2014) 총 38억 원(국비 50: 지방비50)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실었다.

안타깝게도 최초 7개 마을 모두를 사업 대상지로 제안을 했지만 국토부 평가에서 사업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주전항 중심 1k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결국 2개 마을(보밀마을, 새마을)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말았고 경관사업은 출발부터 주민 불만과 마을 간 갈등을 안아버렸다. 12월, 이를 중재하고 시범사업의 진과정을 총괄계획하고 자문하기 위한 경관설계자로 영산대학교 김정민 교수(2014년에는 울산과학대 장훈익 교수)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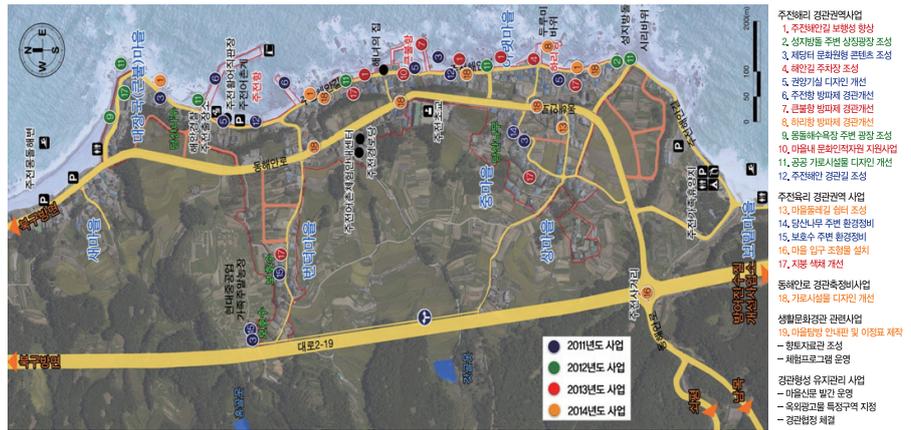
연도별 사업 추진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의 연도별 사업 추진을 간략히 소개하면 2010년도는 시범사업 공모와 선정,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한해였고, 2011년에는 다양한 단체와 함께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힘을 쏟았다. 특히 공모사업 주제가 해안마을 미관개선 시범사업이었기에 참신한 시도가 많았다. 일본 시가현립대 연구진, 울산과학대, 영산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하여 CDL(커뮤니티 디자인 리그)을 시도하였고 주민대표들과 일본의 마을만들기 선진지를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총괄설계와 일괄 도급이 아닌 매년 당해 사업분을 설계하고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발주했다. 사실 무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주민들과의 최대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물었다.

특히 주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매년 주민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 역량을 높였고, 전체 마을 주민설명회는 매년 2회(실시설계, 시공과정) 진행하여 총 10회를 개최했다. 3년차가 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간하는 주전마을신문 “파도소리”가 창간되었고 7월 어촌계에서는 주전마을 구석구석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 의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 추진계획도

추진성과

5년 간의 경관사업을 통해 마을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첫째로 꼽는 가장 큰 변화는 해안 마을의 특징을 살린 경관 개선과 보행로가 확보된 점이다.

주전마을에는 3개의 어항(주전항, 큰불항, 하리항)이 있는데 이 중 주전항은 법정 지방어항으로 높이 6m에 길이 180m의 거대 콘크리트 방파제가 바다를 막고 있어 주전 활어 직판장 2층 초장집에서조차 바다를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방파제 끝단의 생동맞은 빨간색 탑모양 등대는 술한 사람들의 천대를 받았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 벽면, 바닥을 해너, 전복, 돌미역을 디자인 컨셉으로 주전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등대 하단의 테트라포트에 형광색으로 포인트 도색을 진행했다. 이후 주전 방파제는 외부 방문객이 가장 즐겨 찾는 명소로 변모했다. 또한 주민회의를 통해 지지분한 어구를 정비하고 해안가를 독점 사유화 하던 천막, 무허가 가판대 철거로 깨끗한 해안길을 되찾았다. 차량으로 위협받던 좁은 해안길에 옹벽을 활용한 보행데크와 쉼터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여 주전 몽돌해변과 가족 휴양지에 집중된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마을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는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변모한 점이다.

노거수 정비, 제당터 문화원형 콘텐츠 조성, 마을내 문화인적자원 지원사업 등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해서 주전만의 이야기와 공감대 있는 마을로 변모시켰다. 특히 주전마을의 김순연 시인의 집 외벽을 리모델링하여 해안길을 걷다 잠시 멈춰 주전의 이야기를 시(詩)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고 샘물 매점에 들리면 김순연 시인과 도란도란 시의 사연을 들을 수도 있어 주전 해안길에 새로운 명소가 되었으며 사라진 제당 자리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쉼터와 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신들의 이야기를 이용한 돌레길을 만들었다.

셋째 마을 경제 활성화와 업종 개선 유도에 기여했다.

주전마을 관할 남목3동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반면, 주전마을의 인구는 2.5%, 세대수는 8.4%가 증가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관광객 방문과 매출은 20% 상승(어촌계 자료) 했고 횃집이 대부분이었던 해리쪽에는 커피숍, 팬션, 기타 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육리쪽 나대지에는 전원주택과 펜션이 증가 추세로 2011년 이후 건축신고 38건, 허가 74건 등 건축행위가 활발해졌다.

넷째 주전마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도시디자인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간 업무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농수산과의 경우 주전 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건립('13.9월 준공),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해녀·해양 생태학습장 조성 및 체험장비 구입, 체험 준비동 조성 '15.12월 준공) 등 경관사업에 의한 물리적 시설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건설과는 주전로(중2-17) 도로확장 공사(행락철 접근로 개선 및 보행로, 주차장 확보 '15.12월 준공)로 상시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했다. 특히 어촌계 중심의 주전 어촌체험마을은 2014년 883명에서 2015년 3,523명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고, 체험실적 및 수입 또한 5배로 크게 증가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평가로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상” 수상, 2014년 울산동구 으뜸시책, 국토교통부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우수사례지로 소개 등 외부 학회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아랫마을제당(현 철거)



주전돌미역 건조



주전해녀



DESIGN KEY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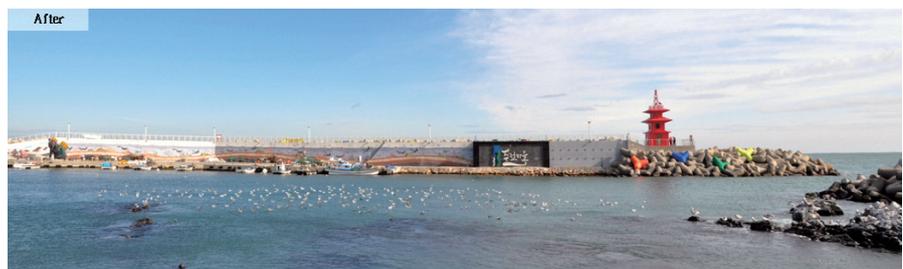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의 디자인 키워드

2011년도 경관사업 전·후 비교

주전항 방파제 경관 개선 전



주전항 방파제 경관 개선 후



권양기실 디자인 개선 사업(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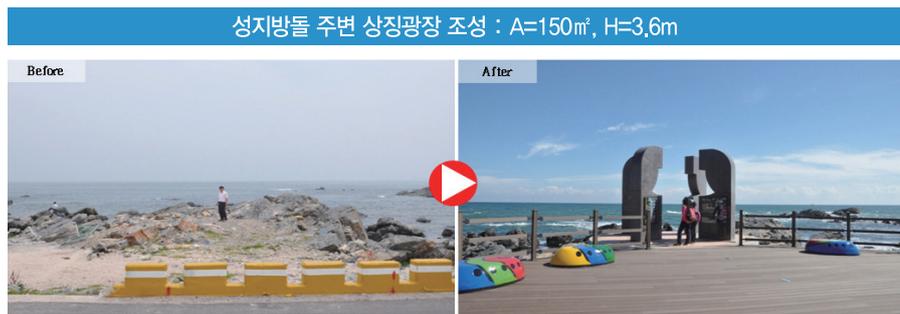


권양기실 디자인 개선 사업(3개소)





2012년도 경관사업 전·후 비교



2013년도 경관사업 전·후 비교

해안길 주차장 조성(A=589㎡, 13면) / 주전 해안길 보행성 향상(315m, 파고라 3, 피크닉테이블 10)



큰불항 방파제 경관 개선(1,185㎡)



마을내 문화인적자원 지원 사업(1개소)



기존시설 리모델링(새마을 광장 리모델링, 화장실문 교체, 보밀마을 쉼터 리모델링 등)



2014년도 경관사업 전·후 비교

마을둘레길 쉼터 조성 260㎡



하리항 방파제 경관 개선 771㎡



해안길 보행성 향상 잔여 구간 371㎡



주전마을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1개소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 60개소



마을 안내판(3개소) 및 이정표 제작(10개소)



사업의 한계

24개의 사업 중 비예산 사업이면서 주민주도형인 마을신문 발간과 경관협정 2개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 마을신문 파도소리는 2012년 최초 발간 후 1년은 매월 발간되다 이후 1년은 격월로 발간되었고 이후 2014년 중반 폐간되고 말았다. 경관협정 체결은 경관협정운영회까지 설립되었으나 경관협정이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전통의 유지보다는 변화에 따른 토지매매와 건물 신축을 택하게 되었다.(사업초기 대비 2배 가까이 올라버린 땅값은 향후 공공개발이나 세입자들에게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경관사업이 추진되면서 체류형 관광객과 해안 둘레길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세월호 사건(2014년 4월), 고래충 방송(2015년 4월),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수주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으로 2014년 말부터 헛집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방문객의 소비패턴 변화와 경기 위축에 따른 대기업 회식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헛집에서 펜션, 커피숍, 분식, 유흥주점 등으로 지속적인 업종 전환으로 이어져 결국 전통가옥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돌이켜보면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은 주전마을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바꾸었지만 당초 취지였던 주민 스스로의 지속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개발과 보전의 갈래에서 계속 옛것을 보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연구자나 공공기관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마을신문과 경관협정 추진을 경험했다는 것은 언젠가 주민 스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불씨를 마련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 언

일본 시가현립대 후노슈지 교수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 “일본에는 그 지역 공무원이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다. 대학교수도 담당 공무원의 말에 귀 기울인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순환보직 형태의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에서는 특히나 어렵다. 한 사람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 모든 부서가 열람 가능하고 동시에 입력과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말이다. 그런 객관적 자료와 통계의 관리는 사업 전후의 성과관리와 추이를 가늠케 한다.

또한 지역마다 차별화 된 경쟁력이란 ‘지역의 역사’,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흔한 것’이라 생각된다. 낡고 고리타분한 것, 너무도 흔해서 지역사람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가장 오랜 생명력을 지니고 지역을 지탱해 온 힘의 근원이다. 사업 이전에 이들을 발굴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주제와 스토리텔링을 엮으면 타 지역과 차별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부심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주전마을의 경우 새마을 홍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보영 어르신과 노인회장 김양원 어르신, 주전동발전위원장 (전)김중채 씨, (현) 남정호 씨, 어촌계장 강원보 씨의 도움이 컸다. 마을의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충청남도 수많은 어촌마을의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와 변화된 모습을 꼭 담장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해의 푸른 바다에 물질하는 해녀와 몽돌해변이 생각나실 때 한번 쯤 주전마을을 방문해 주시길 기대한다.



주전마을 경관형성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바다의 영광’ 매력적인 수변경관의 도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이석현 교수

바다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고향이다. 생명체는 바다를 모태로 하여 잉태되고 진화되었고, 지금도 역시 많은 생명체는 바다의 은혜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지구의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이 바다로 인해 유지되고 조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언제나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두려움,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고향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막연한 동경과 풍요로움, 평온함, 그리움과 같은 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바다는 문화의 교류와 진출의 다양성의 교점이라는 역동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수변도시의 풍경은 수많은 전쟁과 문화교류의 역동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바다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이미지의 규칙을 고집스럽게 지켜왔으며, 문명의 발달과정에서도 붕괴보다는 문화의 긍지와 자연에 대한 존경을 담은 위대한 풍경을 만들곤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확산된 산업화의 물결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머니와 같은 평온한 바다의 이미지보다는 거대산업과 물류의 전초기지로서의 역동성을 선호하였고, 작은 어촌마을을 제외한 큰 규모의 수변도시는 공장과 창고일색의 획일화 된 경관으로 변모되어 오히려 근대의 벽돌소재의 단순한 창고구조물이 정겹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되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바다의 매력적인 이미지에 우리는 새로운 현대성과 산업화의 이미지를 추가시켜 해석해야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다는 인류의 새로움과 오래된 것이 교차되는 문명의 교차점이었고, 문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기에 모든 과시욕과 권력, 재화로 바다를 영광의 상징으로 표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바다는 곧 그 시대와 대지의 영욕의 표상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경제와 물류의 세계화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었고, 해양왕국을 건설하였던 제국의 수변 뿐 아니라 바다를 끼고 무역을 통해 흥망성쇠를 겪었던 대다수의 도시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의 정점으로서 수변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유럽 최초의 세계제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던 이탈리아가 예술과

문화의 거점으로서 수변도시 피렌체를 건설하였던 것처럼,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던 터키의 이스탄불, 중부유럽의 수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영국의 무적함대에 깃발을 내리기 전에 해양대제국을 건설했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영국의 런던, 스칸디나비아 3국의 수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미국의 많은 수변도시들이 그러했고, 호주 시드니와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와 고베, 싱가포르 역시 그러했듯이 그들에게 매력적이고 힘이 넘치는 수변도시의 건설은 바다의 은혜를 입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보은처럼 여겨진 과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도시들은 바다와 어울리는 자신들만의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재정과 우수한 계획가의 참여도 기울이지 않았다.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 세계적인 경기의 쇠퇴 속에서도 여전히 그 역사적 과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수변도시를 건설해 왔음에도 획일화 된 계획과 푸른색 지붕이 넘치는 산업시설 위주의 수변 풍경을 자아내는 우리 도시에 던지는 메시지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

그 중 20세기 중반 이후 도시 역사의 재생을 기치로 추진된 일본의 요코하마와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싱가포르의 수변도시의 정비과정은 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요코하마 수변도시 재생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 수변도시와 유사하게 거창하게 망가졌던 도시풍경을 일본 최초의 개항장이자 문화거점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하였던 점에 있다. 단순히 새로운 첨단 고층빌딩군만 조성시키는 것이 아닌 항구도시로서의 역사적 풍경을 존중하고, 예술문화 중심의 공간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것은 요코하마 도시디자인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인 ‘미래와 과거의 공존’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요코하마만의 매력을 가진 근대 건축물과 시설물을 현대적인 것들과 공존시키고 그 속안에 문화예술을 움직이는 사람과 내용으로 가득 채워 새로운 문화발상지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살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랜드마크타워 수변풍경

특히 대표적인 워터프론트 개발지구인 미나토미라이21 지구는 요코하마 6대 도시개선 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점으로 1988년부터 추진되었다. 이곳은 조선조 위주의 산업시설이 집약된 항구를 문화와 예술, 산업의 거점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첨단시설이 집약된 다양한 개발사업을 30년 이상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30년 넘게 지속한다는 것은 바다가 주는 영광의 도시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적어도 30년 이상의 정책과 계획의 일관성, 수변문화에 대한 행정과 주민의 긍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기적인 개발이익만으로는 이러한 도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요코하마 수변모형 - 가로의 연속성과 수변경관의 정체성을 현대성과 조화시켰다.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도시재생 수변개발 과제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함부르크 미테 지구 하펜시티는 엘베강 주변 오래된 항구의 창고를 중심으로 2.2km에 이르는 해안에 대규모 업무지구와 주택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유럽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었다. 이곳 역시 1990년대까지 쇠퇴한 수변지구를 경제구역으로 재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많은 수변 개발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이스토어할레, 하머브로크실로제와 그로스마크트할레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이와 조화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을 통해 역사를 계승했다는 점과, 수자원의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광스러운 해양도시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이에 하펜시티는 함부르크 시내의 수변풍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새롭게 해안가에 조성되는 업무용 빌딩도, 주거용 건축물도 기존 벽돌 창고 건축물의 외관과 연속성을 가진다. 새로운 건축물에 적용되는 외벽의 소재와 색채도, 시설물의 색채와 소재도 함부르크의 토양에서 기인하여 디자인 자원으로 계승되고 있다. 6-7층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높이 역시 기존 역사적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더하고 있다. 라데팡스가 파리 도심의 가로 연속성을 현대성으로 재해석하듯 하펜시티 역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수변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포장되어 수변에 고층빌딩을 올리는 단순한 토지개발과는 수준이 다르다. 항구를 걸으며 시를,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변과 편의성 중심의 현대성이 결합된 수변은 그 풍경이 안겨주는 감동이 다르다.



함부르크 수변도시 - 건축물 재료, 높이, 색채에서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함부르크 수변도시 - 기존의 창고 건축물군과 새로운 오피스군의 디자인 유사함에서 전통과 현대의 계승을 발견할 수 있다.



함부르크 수변도시 - 안내소에 전시해 놓은 모형은 기존의 도시 역사 속에 하펜시티가 가지는 의미를 찾게 한다.

싱가폴의 수변 개발도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크다. 공적 개발을 통해 조성된 수변 랜드마크가 도시의 매력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기서는 첨단금융의 화려함과 생태환경의 조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그 땅에서 그들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수변의 상징성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1년에 설립된 Garden City Action Committee로부터 승인된 파크 키넥티는 수변 재생의 가장 중심에서 추진방향을 조정하여 수변 및 오픈스페이스, 주택, 가로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일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수변풍경 조성으로서 클락키와 같이 물류창고 구역을 대규모 친환경 주거와 상업단지로 재생시켜 도시활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자리잡은 배경에는 수변이 가지는 생태와 역사문화적 의미에 대한 그들의 가치와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 현대적인 랜드마크를 끌어들이어 현대성을 강조한 수변 중심부 풍경



싱가폴 가든바이던베이 - 수변의 친환경 생태공원

이와 유사하게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역시 새로운 -심지어 여기는 바다를 메운 곳이다- 대지에 구축할 수 있는 혁신성의 역사를 기존의 수변 구도심에 접목시켰다. 낡은 듯, 새로운 건축물과 구조물들이 수변 곳곳에 들어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해 온 네덜란드에 어울리는 수변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인지 에라스무스의 다리와 같은 구조물도, 수변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건축물도 평이한 것이 없다. 그것을 조화시켜 네덜란드의 수변에 어울리는 문화 다양성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알미르도 그러하며 심지어 수도인 구도심 암스텔담의 수변도 낡은 도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한 때 바다를 호령했던 그들의 포효를 담은 고집스러운 수변풍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로테르담의 수변풍경 - 과거의 수변풍경에 혁신성을 조화시켜 네덜란드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수변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기 다른 풍경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긍지이자 영광이다. 새로움이고 기대감이자 과거의 영광에 대한 추억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변재생의 성공사례로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린 곳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역사에 대한 존중이다. 그 도시들은 우선 역사적인 건축자산과 도시 형성과정의 산물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현대성과 과거를 공존시키고 있다.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색채와 새로운 관점을 접목시키고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수변도시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화려함에 치우쳤다면 그 수많은 근대적인 건축물이 어떻게 랜드마크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으며, 그 광대한 면적의 수변에 가든바이던베이와 같은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들만이 가지는 수변의 가치와 궁지, 도시는 그러한 역사의 지속적인 계승의 상징이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항구는 문명의 관문이다. 새로움이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어느 도시보다 창의적으로 혁신성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풍경 역시 다채로움을 기본으로 바다사람들만의 고집스러움이 결합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요코하마에 다양한 도시이미지가 형성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할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며, 함부르크의 하펜시티에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물이 수변에 나열되어 있어도 그 뒤의 창고군의 오래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건축물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수변도시만의 매력이며,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에 대한 존중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말하는 다른 표현이다. 환경오염의 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21세기에 이미 산업화의 산물 또는 운송기지로서의 수변이 가지는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같은 구조라도 자연과 조화되는 형태가 요구되고, 같은 의미라도 바다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더 가치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수변의 경관이 자연을 위협하기보다는 경배하는 또는 순응하는 형태의 경관이 요구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색채, 소재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21세기 수변경관의 가장 큰 요소이다. 사람이 걷고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변경관은 새로운 활력소로의 바다의 의미를 만든다. 또한 창의성과 혁신성의 원천이었던 수변에서만 가질 수 있는 창조성은 다양한 혁신성을 가진 사람들의 무대를 창출한다. 오래된 창고가 디자인 교육센터로, 문화학교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공장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재생되고 있다. 다양한 경관요소에 바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미래의 인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속에서 수변은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론을 넘어서는 수변도시의 매력은 넘치는 힘이 있더라도 바다에 대한 정의감을 잃지 않는 즉, 도를 지나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에 있다. 그 어떤 수상 왕국을 이루었던 도시에서도 바다선과의 연결과 역사의 흐름을 버린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이어왔던 시간만큼이나 더 길 인류의 미래를 고려하여 착실히 물과 조화되는 공간을 형성시켜온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수변개발을 돌아보자. 국내의 많은 수변 도시들이 세계 최고의 수변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왔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아파트로 가득차고, 곳곳에 획일화 된 형태의 공장을 밀어 넣고, 바닷가에는 고층빌딩군으로 메우는 그러한 획일적인 개발 이익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내는 풍경들을. ‘세계적인 수변도시’, ‘국제적인 수변도시’ 등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수변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수변의 진정한 가치를 건축물의 높이와 공장의 면적에서 찾기 보다, 바다풍경과 어울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관에서 찾아왔던 그 수많은 영광의 도시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여수 - 여수세계박람회장 주변의 수변풍경



한국 부산 - 부산항의 수변풍경

●
디자인 레벨 업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Design Chungnam

디자인
레벨 업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공공디자인 컨설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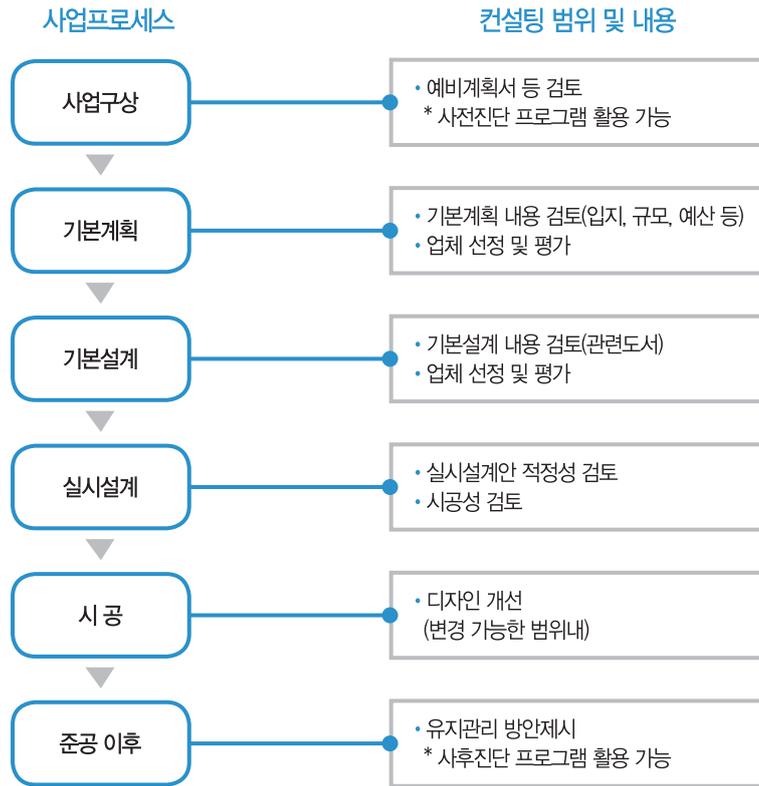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공디자인 컨설팅은 도·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 및 지역대학 등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청남도의 통합디자인을 위해 전문적인 디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대상은 충남공공디자인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물이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충청남도의 고시에 의한 사업 또는 도·시·군의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추진시점은 사업구상단계/기본계획수립단계/기본설계단계/실시설계단계/시공단계/유지관리단계의 사업 전과정에서 가능하며 요청 또는 필요 시 단계마다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명/신청기관/담당자/컨설팅 신청내용/사업개요/예산 및 계획 등을 기입하시면 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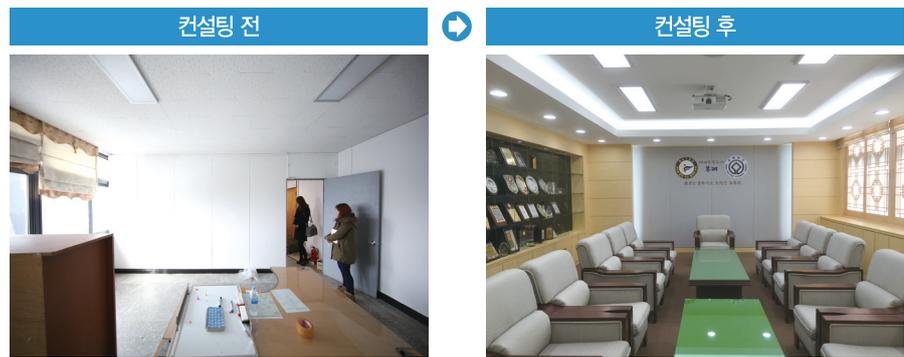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대상
(충남공공디자인조례 - 개정 2013.12.30. 제2조 제3호)

분류	시설물의 종류
F0 F10 F10 간	공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경관(landscape) : 일정한 공간단위의 통일적인 외관 · 공공건물 : 관공서와 공공 문화시설 등 · 도로 : 인도와 차도 등 교통 공간 · 개방공간(open space) : 공원, 광장, 녹지 등 · 역사공간 : 문화유산과 전통거리 · 도시색채계획
	도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쌈지공원 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교량(철도교 포함),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보도, 자전거도로
	공공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F10 F10 시설 매체	교통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 및 옹벽, 육교, 지하도,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포함)· 지하철 안내표지판· 환기구(흡· 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 의자, 쉼터,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 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공중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F10 F10 매체	정보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정표, 안내표시판, 방향유도표시, 규제사인, 관광안내도, 대기오염 전광판, 버스노선도, 지하 철노선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광고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화, 슈퍼 그래픽, 생활정보지 배부함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례

부여군청 주민과의 대화방 디자인 / 공공공간 / 부여군

부여군청 기획 감사실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집견실 및 회의실은 면적 44㎡(13.3평)의 공간이다. 주민과의 대화, 귀빈방문, 회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간조성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탕비실이 없어 손님 접대 시 불편함이 있으며, 낙후된 창호와 기타 시설들이 기능상·미관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개로 나누어진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병합하여 15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시설(회의용 탁자, 의자 및 음향·영상시설)을 설치하였고, 창가에는 낮은 장을 배치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가벽 설치로 탕비실 기능을 분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소통공간
조성' 디자인 /
공공공간 /
금산군**

금산군 금산읍 상옥1리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문화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교육 콘텐츠 발굴 및 문화마을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저해 요소가 많은 상황이며, 기존 사업계획 역시 단계별 전략이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했다. 이에,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문화',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 활용 및 조경계획, 골목길 재생 계획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대상지 현황 및 컨설팅 진행



**정수장
경관재생
디자인 /
공공공간 /
서천군**

서천군 군사리 776-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3,235㎡의 옛 정수장은 당시 활용되고 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공간을 주민 편의 도모 및 쾌적한 장소로 재활용하기 위해 정수장 및 주변길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정수장내에는 변압기실과 철골 변압기계 프레임, 저수조를 남겨두고 모두 철거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차공간, 가로시설물, 쉼터,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하였다.

컨설팅 전



컨설팅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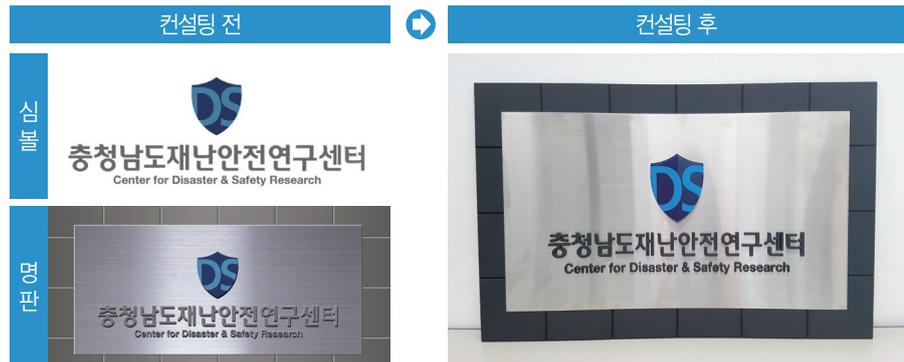
**고마센터 간판
디자인 /
공공매체 /
공주시**

공주시 고마센터는 전시, 공연 및 대관의 기능을 하는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복합 공간이다. 그러나 간판의 특색 없는 디자인이 건물과 조화롭지 못해 철거된 상황이었다. 이에, 경제성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건물과 어울리는 최적의 간판 디자인 제시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컨설팅 방향은 모던한 스타일을 표방하고 정보를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간판의 재질은 건축물 외벽에 사용된 재료와 잘 어울리고, 시인성이 높도록 하며, 고마센터 건축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판 디자인 /
공공매체 /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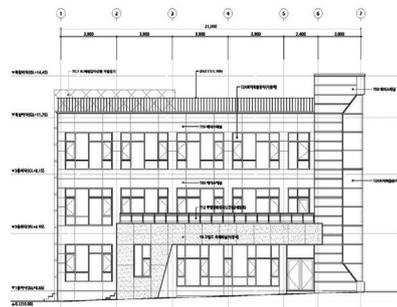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의 개소로 센터를 상징하는 심볼과 명판이 필요함에 따라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국문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로, 영문은 'Center for Disaster & Safety Research'로 정하였다. 심볼과 명패는 재난과 안전의 영문 'disaster'와 'safety'의 약자 'D'와 'S'를 활용하였고, 재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방패를 모티브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디자인 /
공공건축 /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신축되어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다 나은 외부디자인을 위해 부여군에서 컨설팅을 신청하여 진행된 사례이다. 이에, 기존 설계안에서 재료의 패턴 정리를 통해 수평선을 강조하여 건물의 안정감을 유도하고, 재료의 물성을 기준으로 효과적인 입면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칼라강판의 패턴을 일반적인 세로형 거멀접기가 아닌 가로형 거멀접기를 적용하여 디자인의 차별화를 주도록 하였고, 출입구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천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출입구의 인지성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옥상난간은 800mm이상의 철재 평철 난간 위에 우레탄 도장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외벽 디자인은 수직선과 수평선이 조화되도록 패턴과 창호의 내부 Bar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존안 변경을 제안하였다.

컨설팅 진행



●
국내 정책동향

Design Chungnam

국내 정책동향

중앙부처 정책 및 제도 동향

건축 및 도시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관련 「건축법」개정 국회통과

2016. 01. 08.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4년 12월 18일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 「건축법」개정안이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과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관련 주요 사항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건축물 부속구조물에 대한 안전 관리기준 마련, 불법건축 관계자 처벌 강화,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체계 마련,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 직접 지정, '건축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비도시지역 계획적 개발 확대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 05. 10.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5.10)하였다. 관련 주요 사항은 【20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

관리지역 확대,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관련】 ③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④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⑤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포

2016. 05. 24.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가 개정 및 공포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 · 시행됨에 따라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한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 · 공모제도 도입,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등이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 · 공모제도가 2월부터 시행되면서 민간의 참여 확대는 물론 산업단지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장 건축규제 완화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 02. 02.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2.02)하였다. 이번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완화, ②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정안은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6. 04. 22.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입법예고(04.22~06.01)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①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②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③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④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⑥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⑦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①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②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 개선, ③ 장애인·노인 등 편의시설

(장애인용 승강기 등) 면적제외 건축물 확대, ④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거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16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 사업’ 대상 13곳 선정**

2016. 05. 03.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대응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성능개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공지원 부문에 김포 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 등 3개소,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대구수성구청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6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포 국제공항이 외부 유리개선과 단열재 교체를 통해 기존대비 30%이상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었다. 사업기획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 건물 현황평가와 설계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지원사업 시행자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그린리모델링 컨설팅/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방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p>시공지원사업 (3개, 총 4억원 이내 지원)</p>	<p>김포 국제공항(국내선 여객청사)/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동/경기도 따복기숙사</p>
<p>사업기획 지원사업 (10개, 총 2.3억원 이내 지원)</p>	<p>충북 보은군 장애인회관/경북 성주군청사/강원 양구군청사/대구 수성구청 별관/전남 영암군 군서면사무소/전남 영암군 미암면사무소/한국폴리텍 대학 창원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사무소/대전광역시청사/세종시청 초치원청사 C동</p>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6. 05. 04.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 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이 있다. 일부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소개**

2016. 03. 21. 농촌진흥청 | 농촌환경자원과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촌에 어울리는 한국적 주택을 지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통미를 살린 가족 단위의 ‘기’자형 농촌주택 모델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① 개요 : 팔각 지붕 형태로 기둥과 보는 굽은 목재를 사용하는 중목구조이며, 나머지는 경량목구조로 이뤄졌다. ② 특징 : 주방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공간과 거실 공간이 완벽히 분리돼 농가 민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객실을 분리할 수 있게 가변형 평면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면적 증가에 대처하도록 했다. ③ 재료 및 비용 : 기초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외벽은 스티코, 지붕은 강판을 적용하였다. 총 공사비는 약 1억 3,863만원으로 마감재와 공사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에서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도서」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6. 01. 27.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② 안전진단 시행 절차 명확화 : 조합 등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며,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따라 리모델링조합 등이 추진 가능한 리모델링의 사업 종료를 결정·통보하도록 안전진단 시행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 말 부터 공포·시행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6. 05. 09.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2.17」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5.10)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합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이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가능 및 주차난 해소 등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관 및 공공공간

■ 지역경관 지원사업에 경남 밀양시 등 7개 지자체 선정

2016. 01. 12.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가 지역의 다양한 도시·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국토경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과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은 우수 경관자원 밀집지역 또는 경관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정비를 위해 정부3.0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경관을 고려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경남 밀양시 '산수(山水)도시 밀양 리(RE)-디자인'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 도시·건축분야 민간전문가를 지원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충남 부여군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이 강화된 통합적 도시 이미지 형성과 공공사업의 전문성 및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해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세부기준 마련

2016. 04. 14.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정보과

국토교통부는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작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4.15~05.06)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정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중 물류·유통 관련 시설로 정의하여 이와 관련된 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정보

통신기술(IT) 기반 시설(인프라), 연구 개발(R&D) 시설 외에도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과 공공주택을 추가하여 신규 재원 없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여 규모】 공공기여의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시설 조성원가 공급】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 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과 함께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올해 6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하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시설 안전 확보해야

2016. 05. 04.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하천의 평면/중단/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 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 ② 제방은 계획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洗掘)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 ③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목적/배치기준/시설 설치 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법무부와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동추진 업무협약(MOU) 체결

2016. 02. 03.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정책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은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01.28)」에 포함된 과제이며, 2014년 문체부·중기청에 이어 3번째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관련 부처간 협업 사례이다. 양 부처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 5곳을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을 함께 추진하고, 협업 성공모델을 마련하여 타 지역으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금년부터는 오래된 도심지나 달동네 등의 빈 집과 건축물이 노후되고 방치된 곳을 CCTV,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최적 설치 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주민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16. 03. 07.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환경부가 지난해 선정된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등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착공한다. 올해 착공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타당성 분석과 함께 폐자원에너지 종류, 도시별 특성 등이 반영되었으며, 다양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본보기 발굴을 통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신대동, 가락리)】 음식물쓰레기 폐수와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서 나온 폐열로 지역주민에게 온수를 공급하며, 이를 통해 난방비 절감과 건조장, 온실을 운영, 【아산시(배미동, 수장리)】 쓰레기 소각장의 남은 열을 활용해 세탁공장에 증기를 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며, 이곳에서 나온 폐열을 활용, 곤충 사육과 파프리카 유리온실을 운영, 【경주시(천군동)】 소각장의 발전 폐열을 이용해 다목적 오토캠핑장과 온실에 온수를 공급하고 인근 보문관광단지과 연계한 환경생태 공원을 조성, 【영천시(도남동, 구암리)】 가축분뇨처리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 금호강 수변 생태

습지 조성, 화랑 설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과 함께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자전거 도입, 【양산시(화제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한 발전 폐열을 활용해 딸기와 채소를 재배하는 온실, 농산물 판매장 또는 선별장 역할을 하는 그린하우스, 친환경 족욕장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약 35억원의 주민소득 향상과 325명(직접 고용 28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간 온실가스 6만 8,824톤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새로 선정해 시범사업 1곳(홍천)과 올해 5곳을 포함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0곳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 '20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 선정

2016. 02. 04.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사업)」 2016년도 사업대상지 44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0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총 69곳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국비 110억원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사례 1】 주거취약마을 : 노후·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강화군 신문리마을/순창군 심초리마을/진안군 구신리마을), 【사례 2】 재해위험마을 : 침수,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화천군 봉오리마을/상주시 호음리마을/인제군 세화1리마을), 【사례 3】 인프라취약마을 : 상·하수도, 마을도로, 쓰레기 처리장 등 인프라가 취약하여 불편한 지역(옥천군 수목리마을/논산시 동산리마을/성주군 삼산2리마을/창원시 여양리마을) 등이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완료되면 44개 마을, 5,237명이 거주하는 2,522개 주택의 51%인 슬레이트 지붕(1,288개 주택)이 친환경

소재로 바뀌게 되고, 노후 및 불량 담장과 마을안길이 마을경관과 어울리게 잘 정비되며, 경사지의 재해예방·시설보강, 빈 창고·축사의 악취·오염 등 불결한 위생 환경의 해소,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초 인프라도 갖추어져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발표

2016. 01. 국민안전처 | 자연재난대응과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국비 79억원 등 104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0개소의 안전마을을 조성했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진단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시설개선 등 이를 뒷받침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작년 2월 사업을 공모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마을주민과 지역사회, 기업·관공서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왔다. 사례를 살펴보면, ① 부산 사상구 학장동 붉은디마을 : 주민 스스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폐가옥 3채를 철거해 공동 텃밭을 만들고,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 ② 경기 파주시 장파리마을 :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안전마을활동가 15명을 배출하였고, 배수시설/붕괴우려 절개지/노후옹벽 정비와 지능형 CCTV/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안전을 확보, ③ 부천시 : 펄벌마을 사업효과로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이 사업 전보다 약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체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국가·지자체의 조그만 관심으로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됐다.

■ 함께 만드는 마을정원, 희망과 행복을 디자인해요

2016. 02. 04.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업 설계하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은 행정자치부와 8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등)가

협업하여 추진하며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 공동활용시설, 지원시설 등을 조성한 후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한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정부 3.0의 성공사례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미지브랜드(CI) 제작, 특색 있는 명칭, 명찰, 문패 등의 사용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마을정원 지도 및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청, 독일식 친환경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마을 조성

2016. 03. 행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빌딩 시범사업으로 행복도시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마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건축설계지침, 단지 조성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부지를 공급하여 독일식 친환경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마을(ZEECo마을)을 조성한다. 마을의 주요 특징은 ①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을 기반으로 한국 기후에 적합한 자연환기 및 자연형 태양열 활용을 통합, ② 우수기반 생태마을 : 우수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녹지체계, 단지 내 생태순환체계를 구축, 텃밭 및 녹지공간을 통한 주민 간 소통 활성화, ③ 보행 중심 커뮤니티 마을 : 일방통행으로 차량통행 최소화, 생태체계와 연계된 보행 연결망(네트워크)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공동체(커뮤니티) 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타 토지이용 계획이나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마을 종합계획, 감정가격 등 토지공급 관련 주요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마을의 실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착공기한을 부여하고, 제로에너지(에너지자급) 빌딩 지원센터의 기술 지원, 3년간 에너지 사용량 정보수집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 '교통약자 위한 전철역 정보' 다양하고 알기 쉽게 바뀐다

2016. 03. 30.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사고를 2017년까지 30% 저감하기 위한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대책(2015.08)', '철도역사 안전강화 대책(2016.01. 총리보고)' 등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국 전철역의 이동편의 정보를 개선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였다. 교통약자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DB)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장애인 단체(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등 4개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제공정보는 ①【편의시설 정보】 장애인용 화장실, 교통약자 도우미 이용정보 등, ②【이동경로 정보】 출입구~승강장 연속 동선 및 환승경로, ③【승강장 안전정보】 발빠짐 사고예방을 위한 승강장과 열차 간격 등이다. 이에 따라 역사 이용 전에 역내 편의시설,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최적 동선 등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철도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간 위치정보 기술과 연계할 경우 스마트폰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 및 화재 등 비상시 최적 대피경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의 역사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철도운영자 누리집을 통해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발표

2016. 04. 13.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공공단체에서 설치한 공공현수막 중 일부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상업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공공 불법현수막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향후 적정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잘못된 영어 표지판, 원어민과 함께 바로 잡는다

2016. 02. 03. 행정자치부 | 협업행정과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교통 표지판이나 문화재 안내문 중 영어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법상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지판, 안내문 등에 기재된 영문 교정 검토신청을 받고, 영어 원어민이 검토해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 다듬고 교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신청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쓰는 '온-나라 지식' 시스템을 통해 받고, 기관이 교정검토를 받을 영어 표현을 시스템에 게시하면, 행정자치부가 벤처기업 '채팅켓' 서비스를 통해 원어민 교정을 받아 대담해 주는 방식이다. 교정 전과 후가 기록되고 검색되므로, 유사한 사례를 가진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주 발견되는 오류를 정리한 후 각 기관에 알림으로써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진흥의 길을 묻다

2016. 05. 18.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취지인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고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② 창문과 벽면이용 광고물의 경우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추후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 ③ 차량에 디지털광고물을 탑재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옥외광고 및 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설치 지역에서 준수 거지역은 제외하거나, 자유표시구역 이외는 자사광고만 허용하는 등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7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장애인 엘리베이터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2016. 01. 19.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19일에 공포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②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 설치 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③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 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④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⑤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도로 위 암초’ 불법 블라드 없앤다

2016. 04. 17.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블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블라드 높이는 80cm~100cm 내외,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설치한다. 1.5m 간격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블라드가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블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 라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2016. 04. 18. 행정자치부 | 주민생활환경과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 생활형 불편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측면 번호판을 차량 부착물로 간주하여 광고 표시를 금지해 왔으나,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체 옆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 해석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의 배경에는 상업광고 허용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4월 기준 서울(7,200대), 부산(2,300대), 인천(1,900대) 지역에서 총 11,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들 버스에 측면 번호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광고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17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270곳으로 확충, 편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

2016. 01. 07.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2010년) · 후(2016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가 28%, 사망자수는 55%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2011년에 처음 도입하여 2015년까지 총 222개소(고속도로 194, 국도 18)를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성과확산을 위해 2016년에도 24개소(고속도로 14, 국도 10)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 개선, 도로전광판(VMS) 홍보 등을 통해 졸음쉼터 이용을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수막 등으로 졸음사고 위험을 홍보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다.

충남 정책 및 제도 동향

■ 공공디자인 공모 4개 시·군 5곳 선정

2016. 04. 21.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충청남도는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산시 등 5개 시·군에 도비 7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시 공공디자인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9개 시·군 12곳이 응모하였다.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은 서산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금산군과 예산군이 선정되었다. 또한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은 당진시와 금산군이 선정되었다. 도는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에 2억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9,500만원을, 농어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군은 오는 9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 “도시숲 조성·관리에 도민과 기업 참여 기다립니다”

2016. 03. 17. 충청남도 | 산림복지과 산림자원팀

충청남도가 매년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숲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녹화 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기업·단체를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각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을 하면 되며, 도시

숲을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비용 부담, 수목기증, 도시숲 조성·관리 활동에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면 된다. 도는 향후 안내 공문발송과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단체·기업을 모집해 대상지별로 연결해 조성·관리의 책임을 맡길 방침이다.

■ ‘교통안전 대책’ 중점 추진...3개 지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2016. 03. 31. 충청남도 | 도로교통과

충청남도가 농어촌지역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국도 및 지방도변 마을 진출입구 전후 40m 구간을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속도 저감 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통행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한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홍성군 장곡면과 금마면 일원, 국지도 96호·지방도 619호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04년부터 2,736억원을 투입해 246곳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까지 총 212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쳤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 207억원을 투입해 146개소 실시, 올해는 서산과 아산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②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 16개소 9억 3,000만원, ③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1개소 18억원, ④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 : 7개소 5억원, 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 2개소 3억원, ⑥ 횡단보도 안전대
기장치 설치 사업 : 2014년부터 시작하여 횡단보도에서
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40곳에
6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밖에 교통 사망사
고 예방 홍보 마을방송,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학생 교
통안전 대책 토론회, 교통안전 캠페인, 운수종사자 교통
안전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47억 투입

2016. 03. 01.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
충청남도는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
비 47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도
시계획시설은 전액 시·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집행에 한계가 있어 도비 지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 적용 첫 해를 맞는 2020년
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불가
피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 5년 동안 253억원을 투자
해 142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아
산 온천대로 확장장 15억원, 금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6
억 5,000만원, 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000만
원, 보령 인도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예산 삼교 도
로 개설 2억원 등 모두 26개 사업에 46억 7,300만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천 동백꽃마을’ 정보화마을 전국 1위

2016. 05. 17. 충청남도 정보화지원과 정보기획팀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소
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을
도내 35개 마을로 운영 중인데, ‘2015년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서천 동백꽃마을이 전국 1위로 ‘대상’에 선
정, 금산 인삼약초마을과 아산 내이랑마을은 각각 우수상
에 뽑혀 도내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동백꽃 마을】은 농·산·어촌이 한데 어
우러진 마을로 나만의 향초 만들기, 잔디인형 만들기, 단
호박 수확 체험, 갯벌 체험 등을 통해 지난해 1억원 이상
의 매출을 올렸고, 【금산 인삼약초마을】은 타 시·도에서
인삼튀김, 인삼과전 등 인삼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해

5,0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아산 내이랑
마을】은 매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와 여름철 방울토
마토 따기, 가을 수확체험, 겨울 김장하기 등 4계절 체험
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이번 평가를 통해 충남의 정보화마을을 전국
에 알리고, 또한 이들 마을이 도내 타 정보화마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뜰마을 공모 사업에 도내 3개 마을 선정

2016. 05. 18. 충청남도 농촌마을지원과 정주지원팀
충청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농
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조’ 공모에 도내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
다. 선정지역은 논산시 동산2리, 예산군 죽천1리, 태안
군 정죽4리 3개 마을로,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집
수리 지원, 생활·위생인프라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
접한 기능개선 위주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비는 올해
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총 53억원이 투입될 예정
으로,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 공주시, 한옥 지원 사업 발 빠른 홍보

2016. 02. 18. 공주시
공주시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관련 조례 및 예규를 개정했다. 그동안 문화재 보
호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문화재 주변 주거환경
과 고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古
鄣)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
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금성동, 반죽동 등 고
도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500여 필지이다. 시에 따
르면, 지난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한
옥 신축 16건을 포함 총 26건을 접수했으며, 올해도 연초
부터 신청 문의가 이어져 지난해 예산은 거의 소진될 정도
로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은 단독
주택에 비해 2천만원이나 적게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 식당,
찻집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사업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한옥을 신축하면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대지에 한옥을 신축하면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2층 한옥이나 반집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 한옥 트렌드를 심의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지침(예규)을 올해 초 개정했다.



■ 공주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한옥지원 상담실 운영

2016. 02. 18. 공주시

공주시가 문화재 주변 주거환경과 고도 경관 개선을 위한 '공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지정지구 내 한옥을 건립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등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된 고도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대부분이 신청 및 지원 절차, 소요 사업비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공주시청 본관 3층 전략사업과 내 한옥지원 상담실을 마련하고 건축직 공무원, 학예사 등을 배치해 한옥 지원 기준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공주시, 빈집정비 사업에 박차 가해

2016. 05. 16. 공주시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답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등 빈집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조사해 도시와 농촌지역 빈집 45동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1억 3천만원을 들여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 세계유산도시 부여,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 한다

2016. 03. 11. 부여군

부여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6년 도시경관분야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1일 한남대학교 강인호 교수(건축학과)를 지역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민간전문가 지원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도시·건축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자문해 주는 사업으로 충남 부여군, 경기 포천시, 경북 고령군, 강원 횡성군 등 전국에서 4개 시·군이 선정됐다. 앞으로 부여군은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40여 건의 각종 도시·건축 사업의 전문성 및 디자인 품질 향상은 물론,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부여군 농촌테마공원 농림부 최종후보지 선정

2016. 04. 27. 부여군

부여군은 2015년부터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 유치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굿뜨래 알밤'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3개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굿뜨래 알밤 농촌테마공원은 부여읍 동남리 송림공원 일원에(면적 31,754㎡) 사업비 85억원(국비 30억, 도비 6억)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조성되며, 이번 테마공원을 통해 굿뜨래 알밤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도농교류의 거점공원, 농촌체험형 공원, 가족단위 쉼터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테마공원의 주요시설로는 상설홍보체험관, 특산물판매장, 하늘보기뜨락, 알밤광장, 굿뜨래농산물체험장, 거울연못, 가족놀이터, 밤나무체험림, 오토캠핑장, 바이클카페, 조경녹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오픈마켓 형식인 특산물판매장은 이미 품질이 인증된 굿뜨래 농산물인 부여8미(밤, 표고, 양송이, 방울토마토, 멜론, 오이, 딸기, 수박)를 판매하여 직접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부여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논산시, 매력적인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2016. 02. 29. 사회복지과

논산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향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주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2월 29일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여성친화도시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5대 목표, 66개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운영,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을 조성하고 향후 어떻게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핵심사업 5개 분야 66개 사업은 【참여하고 소통하는 논산】, 【내 일(job)이 있는 논산】, 【편안하고 안전한 논산】, 【함께 돌보는 논산】, 【여유로운 문화가 있는 논산】으로 나뉜다. 【내 일(job)이 있는 논산】분야는 성별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취업박람회 개최, 다문화 여성·새일여성인턴 취업연계 사업 확대, 장애인 일자리창출 '꿈앤카페'운영 등 10개 사업을 펼친다. 그 외【함께 돌보는 논산】분야는 문화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홍보, 【문화가 있는 논산】분야에서는 훈련소 면회객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여성가족친화형 시민공원 조성 등 총 66개의 다양한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 천안 동남구청사, 공공시설·주상복합 거점시설로 개발

2016. 04. 21.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4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천안시와 LH는 노후 동남구청사를 청사와 어린이회관,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이 복합된 거점시설로 개발하게 되며,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 국토환경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천안시는 토지 현물출자 및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LH는 사업총괄관리를 맡게 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사학진흥재단은 행복기숙사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기간 동안 천안시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낙후청사를 정비하여 원도심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와 일자리, 행정서비스가 통합된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계획하고 공익성과 수익성 균형을 통해 천안시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층 비중이 높은 천안시의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전용 문화·체험시설인 어린이회관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생 기숙사를 유치함으로써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 수요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뉴스

Design Chungnam

디자인 뉴스

■ 국민 참여 모델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세계가 인정하다

2016. 02. 28. 행정자치부

「IF 디자인 어워드 2016」 서비스디자인 부문 최초 금상 수상 국민이 정부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행정 유형인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3.0 국민 디자인단」 운영사례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서비스디자인(정부/기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은 영화계의 아카데미상에 해당하는 디자인 분야 최고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2월 26일 독일 뮌헨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수상한 서비스디자인 부문은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 올해 처음 도입된 분야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금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민 참여형 정책개선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 정책에 디자인을?

정책디자인 길라잡이에게 물어봐

2016. 03. 27. 행정자치부 | 국민참여정책과

행정자치부는 정책 수립 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담은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은 국민참여형 정책디자인의 개념, 필요성, 표준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민디자인 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공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등 관련 기관들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국민디자인 과제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표준화하고 활성화시켜 향후 정책에 참여와 디

진을 입히는 새로운 흐름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지자체 국민디자인과제 주요 분야(예시)

주거환경	도시재생, 도시안전, 여성친화 등
사회복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지역공동체	공동육아, 나눔경제, 공유문화 확산 등
보건건강	건강마을 조성,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관광	지역특화, 체험관광, 생태공원 조성 등
농어촌	귀농귀촌, 농가소득증대, 농업인 지원 등

※ 상기 분야(예시) 중 지역현안 과제가 속한 분야를 국민디자인 과제로 채택하여 운영

■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2016. 05. 02.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우수성 발굴 및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한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준공, 계획, 사진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주제 무관하게 무엇이든 출품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사진 부문에서는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주제 제한 없이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는다. 계획 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도심 속 한옥'을 주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공모접수는 7월 25일~7월 29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8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은 국가한옥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작품접수	1차 심사	2차 심사
준공부문	7.25 ~ 7.29	8월 초	8월 중
계획부문	7.25 ~ 7.29	8월 초	8월 말
사진부문	7.25 ~ 7.29	8월 중	-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일정 변동 시 홈페이지 참고

■ 스토리가 담긴 명소·명장면 찾습니다

2016. 04. 11. 충청남도 | 홍보협력관실 콘텐츠팀
 충청남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충남의 명소·명장면 50선 발굴' 공모전을 개최키로 하고, 4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응모작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2,500만원 규모로,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호감이 가는 명소·명장면을 찾아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모 분야는 일반영상과 스마트폰영상, 디지털사진 등이며, 영상·사진 주제는 도내 자연환경과 축제·행사, 전통문화, 농특산물, 가족여행 등이다. 응모는 도 홈페이지 공모전 코너에 접속해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거나, 도 홍보협력관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스토리, 작품성, 창의성, 구성력,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응모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심사를 진행, 모두 50점의 입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상은 분야별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한 뒤,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도의 관광종합 홍보 영상이나 홍보 책자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홍보협력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스토리가 담긴 명소 명장면 찾습니다.

분야 1	〈스토리가 있는 충남의 명소·명장면〉 일반영상 공모
분야 2	〈스토리가 있는 충남의 명소·명장면〉 스마트폰 영상 공모
분야 3	〈스토리가 있는 충남의 명소·명장면〉 디지털사진 공모
주제별 내용	1. 자연환경 : 산, 바다, 강, 계곡, 동굴, 호수, 보호수 등 2. 축제행사 :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3. 전통문화 : 역사, 종교시설, 장인, 유적지, 문화재, 소리 등 4. 농특산물 : 도내 농·수·특산물, 맛집투어 등 5. 가족여행 : 캠핑, 공연, 농어촌 체험, 수학, 등산, 수영 등

■ 제1회 세계유산도시 부여다운 건축물 공모

2016. 04. 20. 부여군
 부여군은 세계유산 도시다운 지역특색을 살린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세계유산도시 부여다운 건축물'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부여군 소재 모든 건축물이며, 접수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올해 10월말까지 도시건축과(041-830-2396)로 개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건축물은 11월 중 부여군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이며, 건축주, 설계자, 신청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물에는 인증동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수변도시의 매력은 넘치는 힘이 있더라도
바다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는
즉, 도를 지나치지 않는 '절제'의 미학에 있다.